

KMI 국제물류위클리

2016년 6월 1일 · 제 359호
미래전략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총괄 이성우 실장, 감수 길광수 선임연구위원

Contents

| 물류정책 · 사업동향 |

1. 아시아 음료 소비시장의 급성장으로 물류흐름 변화 예상
2. 중국 일대일로 해외투자로 향후 글로벌 해운물류 지도 변화 전망
3. Hitachi Transport System과 SG Holding, 자본제휴 시행
4. IMO,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제(VGM)' 3개월 유예

| 물류시장동향 |

1. 머스크사, 아시아-북유럽 네트워크 향상 계획
2. DHL, 암스테르담 스키폴에 첨단 의약품 전용 물류 센터 건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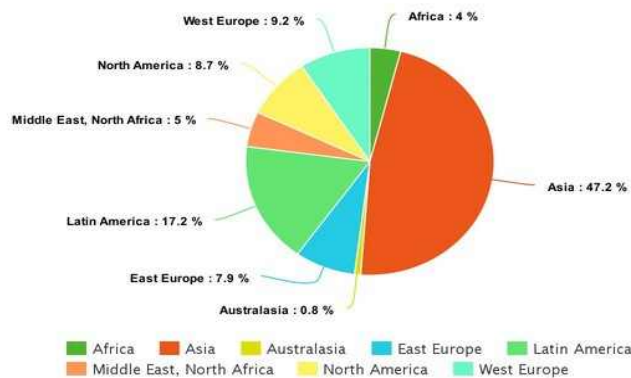


물류정책 · 사업동향

아시아 음료 소비시장의 급성장으로 물류흐름 변화 예상

- 아시아 음료시장은 향후 5년간 전례 없는 성장으로 2021년에는 글로벌 소비량의 약 절반정도(47.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음료산업 분야 전문 글로벌 시장 조사 회사인 캐나디언(Canadean)사의 예측에 의하면 2021년 까지 음료소비량이 증가하는 상위 10개국 중에 6개국이 아시아 시장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 6개국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태국, 베트남인데 전체 음료 소비량 증가분의 3분의 2가 이 6개국에서 일어나는데 특히 중국이 3분의 1을 차지함
- 그에 반해 캐나디언사는 북미와 서유럽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8.7%, 9.2%로 줄어듦
 - 2000년 기준 북미와 서유럽 시장은 글로벌 음료 소비량의 약 1/3을 차지했는데, 2021년에는 18%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 게다가 캐나디언사는 2021년에 단지 미국, 일본, 독일 세 개의 선진국만이 음료 소비량 상위 10위권에 속할 것으로 예측함

글로벌 음료 소비시장 점유율(2021년)



자료 : Canadian사, www.apfoodonline.com

- 병이나 캔으로 된 음료 소비가 신흥시장에서 급증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이들 시장에서 질 좋은 수돗물을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 주요 원인임
- 또한 신흥시장의 가처분소득 증대, 음료 회사들의 마케팅 전략과 물류 체인의 확산이 접목되어 음료 소비를 더욱 촉진시키고 있음
 - 캐나디언사의 제품 개발 관리자인 Antonella Reda씨는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 가처분 소득의 증가, 특히 중국에서의 에너지 음료에 대한 강력한 수요로 아시아 지역의 음료 소비가 증가한다고 밝힘



- BeverageDaily.com사는 중국의 급속한 도시화, 빨라지는 일상생활, 에너지 음료 기능에 대한 인식의 확산, 주요 회사들의 강력한 마케팅 전략과 확장되는 물류 체인과 소매점의 증가로 인해 음료 소비는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함
- 음료시장 중 소프트드링크(무 알코올 음료)가 아시아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포장되어 벌크단위로 집과 사무실에 직접 배달되는 물이 다른 음료에 비해 소비량이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전문가들은 이러한 아시아의 소비량 증가는 이들 지역, 특히 아시아역내 지역의 화물 운송량도 증가시킬 것이라고 언급함
 - 향후 신흥시장의 지속적인 소비량 증가세는 아시아역내 지역의 거래량도 빠르게 증가시킬 것이라고 IHS의 아시아태평양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Rajiv Biswas씨가 언급함

자료 : www.warc.com, 2016.5.24 / www.apfoodonline.com, 2016.5.23 / www.jpc.com, 2016.4.29.

이연경 전문연구원
051-797-4682, eklee@kmi.re.kr



중국 일대일로 해외투자로 향후 글로벌 해운물류 지도 변화 전망

-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 전략이 유라시아는 물론 전 세계의 해운, 특히 컨테이너 해운업계 변화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됨
 - 이와 같은 주장은 최근 싱가포르해운협회 주최 패널토론에 참석한 싱가포르 해운사 Pacific International Lines(PIL)의 경영 책임자인 테오 시웅성에 의해 제기됨
 - * PIL은 1967년 선박 2척으로 창립한 싱가포르의 화교계 중견 선사로 현재 다목적 세미 컨테이너선, Break-bulk선 등 60척 이상의 선박을 운영하고 있음
 - * PIL은 컨테이너와 브레이크벌크 화물을 비롯한 특수화물 운송에 특화하고 있으며,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칭다오, 톈진, 상하이, 닝보, 광저우, 선전, 아라산커우 등), 타이완 및 동남아 주요국에 영업망을 갖추고 있음
 - 이와 같은 주장은 새 해운동맹(The Alliance)의 등장, 3D 프린팅 기술의 확산, 2만 TEU급 초대형 선박의 도입에 따른 선박 대형화가 해운업계 최대 이슈로 부상하는 가운데 제기되고 있어 중국 일대일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중국 일대일로 전략의 최대 변수 주장에 대해 테오 시웅성은 다음의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
 - 첫째, 중국 일대일로 전략 추진에 따라 중국 자본의 해외 진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함
 - * 실제로 2015년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액은 사상 처음으로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액을 앞질렀음
 - 둘째, 일대일로에 의한 중국의 해외투자 대상이 교통·물류를 포함한 인프라에 집중되고 있음
 - 셋째, 중국의 일대일로는 중국의 제조업 능력의 동반 성장을 꾀하고 있음
 - 특히 테오 시웅성은 제조 능력의 신장과 관련해, 중국 일대일로가 해외 산업기지 건설을 통해 동남아 및 중동 등 해외 시장으로 중국의 중저가 제조 상품의 수출을 가능케 할 것으로 전망함
 - * 테오 시웅성은 특히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등지의 산업특구 프로젝트에 중국이 수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후 중국은 이와 같은 생산거점을 통해 전 세계에 더 많은 상품을 수출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 테오 시웅성은 중국 시진핑 주석이 주창한 일대일로 전략이 단순히 중국 스촨성 충칭에서 유럽으로 철도를 연결하는 것이 아닌, 글로벌 제조 분야에서의 대규모 대외투자로서 해당 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재 수요를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글로벌 컨테이너 해운산업에도 편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함
-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일대일로 연선 국가들에게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보다는 연선 국가들이 일대일로 관련 사업을 먼저 중국에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함
 - 패널 토론에 참석했던 싱가포르국립대 왕 궁우 교수는 “중국이 연선 국가들과 정확히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는 확신할 수 없으나, 그렇다고 해당 연선국가 정부가 중국과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손 놓고 기다릴 만한 여유가 있는지도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함



- 싱가포르해운협회의 패널 토론은 지난 4월 중국건설은행(CCB)이 싱가포르와 30억 달러에 이르는 일대일로 관련자금을 싱가포르에 제공하기로 MOU를 체결한 뒤 나온 것으로, 중국 일대일로의 의도에 대해 아직 의구심을 가진 ASEAN 국가들의 참여 유도를 위한 발언으로 풀이됨
- 중국은 싱가포르와의 정부 대 정부 자금 지원 MOU를 성사시킨 것을 계기로 향후 ASEAN 진출에 더욱 더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됨

자료 : www.loydslist.com, 2016.4.26.

박성준 전문연구원

051-797-4774, sjpark@kmi.re.kr



Hitachi Transport System과 SG Holdings, 자본제휴 시행

- 일본 주요 물류기업인 Hitachi Transport System과 SG Holdings가 자본제휴(capital alliance)를 시행함
 - Hitachi Transport System이 SG Holdings의 핵심 사업부문인 Sagawa Express사의 지분 20%(663억 엔)를, SG Holdings는 Hitachi Transport System의 지분 29%(875억 엔)를 인수함
 - 이번 자본제휴는 이들 두 기업이 해외사업 확장을 위해 국제 M&A를 모색하는데 최근 몇 년을 보낸 뒤 이루어진 것임
 - 두 기업은 자본제휴를 통해 운영을 통합하고 매출액 기준 일본 제2의 물류기업으로 도약 할 것으로 예상됨
- 이번 제휴는 이들 두 기업이 전략적 자본 및 사업 제휴를 맺기 위한 협약을 발표한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진행됨
 - 협약이 발표되었을 때 두 기업은 '자본 및 사업 제휴의 결과에 기반을 둔 관리 가능한 통합'에 대해 논의 및 고려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 만약 두 회사가 지주회사 방식이나 합병을 통해 운영을 통합한다면, Nippon Express사에 이은 일본 제2위의 물류기업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 2015 회계연도(15.4.1~16.3.31) Hitachi Transport System은 전년대비 0.3% 증가한 6,800억 엔의 매출액을 달성하였으며, SG Holdings는 전년대비 10% 증가한 9,430억 엔의 매출을 기록함
- 두 기업은 그동안 해외사업 확장도 추진해왔음
 - Hitachi는 2012년 미얀마에 현지 자회사를 설립한 최초의 일본기업이며, 2013년에는 미국 물류기업인 James J. Boyle & Co.와 홍콩 물류기업 CDS Freight Holding Ltd., 그리고 터키 Mars Logistics Group Inc.의 최대 지분을 매입하며 보다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음
 - SG Holdings 또한 2013년 Singapore's Ameroid Logistics의 대부분 지분 인수를 포함하여 일부 해외 물류기업들을 인수했음

자료 : www.joc.com, 2016.5.20.

김은우 전문연구원

051-797-4772, hisgrace@kmi.re.kr



IMO,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제(VGM)' 3개월 유예

- IMO는 올해 7월 시행 예정된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제(VGM, Verified Gross Mass)'를 3개월 동안 유예하기로 결정함
 -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제'는 2014년 11월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개정안에 신설되어 화주가 수출컨테이너 화물 선적 전에 화물에 대한 검증된 중량을 선사에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
 - 동 제도는 부적절하거나 불균형한 컨테이너 적재량 등으로 인한 해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
-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제'는 컨테이너 중량 측정법, 검증된 중량 제공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과 관련하여 화주와 선사들의 혼란을 유발함
 - 해운컨설팅업체 Drewry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화주와 선사들은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가장 혼란스러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 제도로 인해 수출 지연이 야기될 것으로 확신
- 따라서 시행일은 그대로 유지하되 첫 3개월의 유예 기간을 통해 VGM 정보에 대한 문서 작업, 교류 및 공유 등에서 발생하는 초기 단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함
 - IMO는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제' 시행 후, 3개월의 유예과정을 통해 회원국 정부와 항만국통제관이 SOLAS 의무 이행을 지연시키지 않을 것이라 언급
 - 또한 제도 시행에 시간적 여지를 줌으로써 기업들이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중량에 관한 전자정보 수집을 위한 뉴소프트웨어 문제 등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
 - 한편 오는 7월 1일 이전에 VGM 없이 처음으로 선적된 환적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환적 일 이후 다음 환적에 대해 VGM을 요구하지 않도록 권고
- 그러나 IMO는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제' 유예기간을 유지하는 동안 안전한 포장, 컨테이너 수송 및 처리 등을 포함한 선박운영의 안전성은 VGM 정보 이용에 국한되지 않고, SOLAS 규정에 포함된다고 강조함
- SOLAS 협약 서명 국가는 화주, 터미널 운영자 및 선주 등이 동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공급망 산업에 세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자료 : www.worldcargonews.com, 2016.5.24 / www.wsj.com, 2016.5.23.

전우현 연구원
051-797-4615, jwh0321@kmi.re.kr



물류시장동향

머스크사, 아시아-북유럽 네트워크 향상 계획

- 머스크사가 세계 최대 무역량을 차지하는 아시아와 북유럽 간의 네트워크를 향상시킬 계획임
 - 이 계획을 통해 제품 운송의 신뢰성과 정시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운송시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기항지를 줄여 좀 더 단축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함
 - 아시아의 주요 국가에서 독일과 네덜란드로 운송하는 루트를 가장 경쟁력 있는 운송루트로 여기고 있으며 운송시간을 4일까지 단축시킬 예정임
 - 또한 대형 컨테이너선을 투입하여 운송 효율을 높일 계획임

자료 : www.portnews.ru, 2016.5.31.

이하림 연구원
051-797-4758, harimyi@kmi.re.kr

DHL, 암스테르담 스키폴에 첨단 의약품 전용 물류센터 건립

- 글로벌 포워딩 회사인 DHL은 암스테르담 스키폴 지역에 첨단 의약품들을 위한 새로운 물류센터를 개장함
 - 새로운 물류센터는 스키폴 공항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온도에 민감한 제약품 및 약용 제품 등의 임시저장, 운송 준비 등을 위한 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함
 - 해당 센터는 물류 전문가 14명이 직접 운영할 예정임
- 스키폴의 물류센터는 신선물류를 취급함에 따라 섭씨 2~8도에서 보관해야 하는 의약품들을 위한 저장 공간과 섭씨 15~25도에서 보관할 수 있는 물류공간으로 구분됨
 - 온도 조절을 위한 특수 시설을 장착하였으며 냉동 컨테이너의 충전이 가능하고 드라이아이스도 계속적으로 보충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함
 - 또한, 기존에 정해놓은 한도에서 온도가 초과하거나 떨어지면 알람이 울릴 수 있도록 온도와 습도를 감지해주는 다수의 센서 설비를 갖추고 있음
- DHL 글로벌 첨단약품 물류센터장 Nigel Wing씨는 첨단약품들은 기존의 GMO&GSP 기준에 비하여 더욱 엄격한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고 온도변화에 예민한 의약품 특수성 때문에 새로운 물류공급체인 구조를 구축했다고 함
 - 따라서 스키폴의 물류센터는 이러한 고려 하에 건립된 것으로 높은 수준의 퀄리티를 충족 시킬 과 동시에 기존의 온도 통제 네트워크를 세계적으로 강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함

자료 : www.gscintell.com, 2016.5.20.

김민경 연구원
051-797-4777, mkkim421@kmi.re.kr